

제25차 NYPI 직원역량강화 콜로키움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일 시 2020년 4월 8일(수) 10:00~11:30
장 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주 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5차 NYPI 직원역량강화 콜로키움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 강사 프로필 |



강원국 교수

(現,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PROFILE

■ 주요 약력

-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초빙교수(現在)
- 대통령비서실 연설담당 비서관(2004~2008)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 행정관(2003)
-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실 행정관(2000~2002)

■ 주요 저서

- 강원국의 글쓰기(2018) 저자
- 대통령의 글쓰기(2017) 저자
- 리더의 글쓰기(2016) 저자

강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강 원 국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I. 글쓰기 개요

1. 글쓰기의 본질

- 글쓰기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사고 능력과 표현력이 있어야 한다.
 - 그래야 착상과 전개가 가능하다.
- 글은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독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 글쓰기는 ‘메시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 글쓰기는 ‘자료’를 찾아 ‘요약’하는 일이다.
 -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과, 그것을 요약 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 글은 ‘사실’과 ‘느낌’, ‘의견’과 ‘인용’을 결합해 놓은 것이다.
 - 모든 글은 사실에 감상을 곁들이거나, 자기 생각과 남의 의견을 조합해 놓은 것이다.
- 글쓰기는 ‘어휘’를 문장으로, ‘문장’을 문단으로, ‘문단’을 한편의 글로, 부분이 관계를 맺어 전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 그러므로 어휘력이 관건이다.
- 글은 마구 쓴 후 고쳐 쓰는 것이다.
 - 한번은 생각나는 대로, 다른 한번은 독자의 시선으로,
 - 한번은 일필휘지로, 다른 한번은 짜깁기로,
 - 한번은 버리기 위해, 다른 한번은 끝내기 위해 쓴다.

2. 글쓰기에 관한 다섯 가지 오해

- 첫째, 글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으로 잘 쓸 수 있다.
 - 모든 작가의 초기작품은 형편없다.
 - 연습과 훈련으로 잘 쓰게 된 것이다.
- 둘째, 글쓰기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다.
 - 글로써 ‘감동’을 줘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 없다. 그저 목적에 맞게 쓰면 된다. 글의 ‘효용’만 있으면 된다.
 - ‘작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제품은 매뉴얼대로 만들 수 있다. 글도 매뉴얼로 쓸 수 있다.
- 셋째, 글쓰기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지 마라. 그게 형식이다.
 - 품 나게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엇을 쓸 것인가’를 찾아라. 글에서 중요한 것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 넷째, 글쓰기는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다.
 -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있던 것을 새롭게 조합하면 된다. 언젠가 보거나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쓰면 된다.
 - 영감이나 직관으로 쓰는 게 아니다. 자료로 쓰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비틀거나, 빼고, 나누고, 섞으면 새로운 것이 나온다. 영감과 직관조차도 자료를 보거나 글을 쓸 때 나온다.
- 다섯째, 글쓰기는 정신노동이 아니라 육체노동이다.
 - 글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쓰는 것이다. 손으로 사유하는 행위이다.
 - 시간을 들여야 한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야 써지는 게 글이다. 양이 채워져야 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글쓰기다. 시간을 건뎌내는 백지는 없다. 양질전화(量質轉化)의 법칙을 믿어라.

3. 글쓰기 압박에 대한 대응

● 첫 줄에 목숨 걸라는 압박

- 첫 줄부터 잘 쓰려는 것은 백점 맞고 싶은 욕심이다. 스스로 죄는 강박이다. 그래서 첫 줄을 놓고 끄끙 앓는다.
-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쓰자. 첫 줄에서 헤매지 말고, 그렇게 한 줄이건 두 줄이건 쓰고 시작하자. 뭐라도 메워 놓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 상태에서 하나씩하나씩 고쳐나가자. 빵점에서 출발해 점수를 더해 나가자.

● 일필휘지하라고 하라는 압박

-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덧붙여 쓰면 된다. 생각은 폭 삭일수록 감칠맛이 난다. 글이 머릿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시간 간격을 두고 끊어 쓰자.
- 일부러라도 덮어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머리는 혼자 생각한다. 그러다 지하철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새벽녘 잠결에 문득 생각이 난다. “이 내용을 추가하자.” “이걸 이렇게 고치자.” 이때 썩사게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거나 메모지를 찾으려 한다.
- 끊어 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다. 글 쓰는 것은 진을 빼는 일이다.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완전히 방전된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도록 중간에 충전 시간을 가져야 한다.

● 개요를 완벽하게 짜고 써야 한다는 압박

- 개요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쓰다 보면 어차피 다 무너지는 게 개요다. “당신은 집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짓느냐. 그래 가지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글을 쓰려면 뼈대부터 잡아놓고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짜임새 있는 글을 쓸 수 없다.”는 말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 개요를 짜는 것보다 일단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개요가 필요하면 쓰다가 짜도 늦지 않다. 글쓰기 프로세스의 맨 앞에 개요 짜기를 굳이 넣어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꼭 개요를 짜야 할 때에도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히 메모하면 된다. 여기에 쓸데없이 시간 들일 필요 없다.

4. 기계적으로 글쓰기 5단계

● 마구잡이로 쓰기 (1단계)

- 쓸 거리가 정해졌으면 무조건 쓰기 시작한다. 생각나는 대로 쓴다. 한 줄이건 한 쪽이건 분량은 상관없다. 아는 대로 쓰자. 생각이 안 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쓰자. 예쁘게,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말자. 그냥 나오는 대로 쓰자. 이렇게 해서 그 무엇이건 글로 쏟아냈다면 한고비는 넘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요리할 준비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이러한 착수는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마감까지 충분한 숙성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착수는 생각의 닻을 내려놓는 효과가 있다. 닻만 내려놓으면 이후 다른 일을 하더라도 뇌는 계속 궁리한다.

● 상세검색 가기 (2단계)

- 써 놓은 것을 그대로 두고 ‘네이버’에 가자. ‘상세검색’ 화면으로 들어간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는다. 검색어가 너무 포괄적이면 광범위한 내용이 나오므로 곤란하다. 검색범위가 좁아야 한다. 독특할수록 좋다. 그래야 구미에 맞는 내용만 나온다.
- 아무튼 검색어를 넣었으면 모든 언론을 클릭하고, 글의 종류는 ‘칼럼’만 선택한다. 굳이 네이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자기가 쓰는 포털 사이트 가운데 관련 칼럼을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 긁어오기 (3단계)

- 칼럼이 죽 뜯 것이다. 하나씩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긁어온다. 무엇을 긁어올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좋은 글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내용이다.
- 이야기 : 사람들은 글에서 두 가지가 얻어야 만족한다. 재미와 효용이다. 우선, 재미를 충족시키려면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미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가장 좋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가. 그래서 남의 경험, 즉 사례가 필요하다. 칼럼에 사례는 많다. 이밖에도 에피소드, 고사성어의 탄생 배경, 우화, 신화가 모두 이야기이다. 이 또한 칼럼에 널려 있다.
- 인용거리 : 사람들은 글에서 남에게 전할 만한 거리를 찾는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 용함 직한 명언이나 속담, 격언, 통계 같은 것이다. 이런 걸 챙기면 독자들은 수지맞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안 들어본 것일수록 고마워한다. 누구나 글을 읽고 나면 이런 것 한 토막만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 칼럼 이곳저곳에 널려 있다.

- 정리된 생각 : 글의 중심이 되는 자신의 의견이다. 대개 첫째, 둘째, 셋째로 정리되곤 한다. 일종의 ‘썰’이다. 시각은 다양할수록 좋다. 여러 칼럼을 읽으면서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접하다 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된다. 그것을 쓰면 된다. 독자들은 여기에서 지적인 포만감을 느낀다. 도식화, 유형화도 같은 맥락에서 좋아한다. 머리 쓰기 성가신데, 대신 정리해주는 것이 감사하고, 기억하기도 편한 까닭이다.
- 논박거리 : 사람들은 싸움 구경을 좋아한다. “이런 의견도 있다.”며 남의 얘기를 끌어다 놓고 뒤집는 방식이다. 남의 주장을 제물로 삼아서 각을 세우고 자기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일부러 이슈를 제기해서 공박을 펼치는 것이다. 칼럼을 읽으면서 뒤집기 좋은 먹잇감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네 종류의 ‘꺼리’를 가져다가 1단계에서 써 놓았던 그곳에 갖다 붙인다. 이제 쓸거리가 다 모인 것이다.

● 전개하기 (4단계)

- 1단계와 3단계에서 붙여놓은 내용을 순서와 분량, 논리적 연결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한다. 무슨 내용이 가장 먼저 와야 할지, 어떤 순서로 글을 전개할지 생각한다. 어떤 내용의 분량을 키우고 어느 것은 짧게 언급할 것인지, 글의 전체 분량을 염두에 두면서 안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글 덩어리들을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게 엮을 것인지 생각한다. 논리적 연결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남이 알아먹을 수 있게 이어 가면 그만이다.
- 전개하기 핵심은 그다음이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유지시켜야 한다. 첫 줄에 엮인 독자가 자기도 모르는 것에 끌려 줄줄이 읽어 내려올 수 있게 말이다. 독자는 끝까지 읽을 의무가 없다. 궁금하지 않은 순간 떠난다.

● 고쳐 쓰기 (5단계)

- 4단계를 마쳤으면 글을 잊고 다른 일을 한다. 마감 시간이 급하면 산책이라도 한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머릿속에서 글을 숙성시키는 과정이다. 컴퓨터나 원고지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글을 고민하지 않아도 머리는 계속 글을 고친다. 나의 잠재의식이 대신 일한다. 절박할수록 더 열심히 일한다. 밥을 먹거나 친구와 대화하다가, 아니면 새벽녘 꿈결에 생각이 난다.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고쳐라. 정색하고 글을 마주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내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손을 댈수록 잘 고쳐진다. 마치 장기 훈수 두는 사람처럼. 이런 다섯 단계를 거쳐 글을 쓰면 못쓸 글이 없다. 누구나 쓸 수 있다.

II. 작성법

1. 핵심메시지 찾기

-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분명하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기 위해 글을 쓰고 말을 한다.
 -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정해지면 다 된 밥이다.
- 자신이 잘 알고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 지식이나 경험 모든 면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자신 있는 지점에서 붙어야 승산이 높다. 홈그라운드에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적진’에 뛰어들어 주제를 잡을 일이 아니다.
 - 그렇다고 ‘개똥철학’이어서는 곤란하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자님 말씀’도 좋지 않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는 재미없지 않은가. 자신만의 시각을 보여주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얘기일수록 좋다.
- 듣는 사람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찾는다.
 - 어차피 글이나 말은 읽고 듣는 상대가 중요하다. 그들이 관심 없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내용은 얘기해봤자 전달이 어렵다.
 - 해당 계기의 연설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설득, 제안, 당부, 설명, 단순 축하 등
 - 신문에서는 어떤 제목을 뽑고, 방송에서는 어느 부분을 육성으로 인용할 것인지 고려한다.
- 그 계기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내용을 찾는다.
 - 칭찬이 필요한 자리에는 칭찬을, 격려가 필요한 때에는 격려를,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위로의 말이 들어가야 한다.
 -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그 시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고려한다.
- 핵심메시지가 정해지면 모든 내용은 자동적으로 이를 향해 수렴한다.
 - 따지고 보면 글이나 말은 핵심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사례, 비유 등을 나열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재와 소재, 즉 글감을 충분히 찾아야

한다. 소재가 핵심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재료라면 제재는 여러 소재 가운데 핵심메시지와 좀 더 밀접한 재료이다.

2. 개요 짜기

- 건축의 설계도가 중요하듯 구성안을 잘 만들면 절반은 성공이다.
 - 핵심메시지를 뒷받침할 소재 발굴(현황, 실적, 정책, 통계, 사례 등)
 - 어떤 순서와 논리로 엮을 것인지 연결구조 확정
 - 전체 연결시간에 맞추어 각 부분별 비중 및 시간 안배
- 글의 전체 구도를 짜는 과정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 첫째, 글을 쓸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 둘째, 하고자 하는 이야기 간의 분량 안배를 위해서다.
 - 셋째,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 넷째, 앞에 나온 얘기가 뒤에 또 나오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다.
 - 다섯째,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 일반적으로 ‘개요 작성’이라고 하며, 크게 전개적 구성과 종합적 구성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 전개적 구성은 시간적 구성과 공간적 구성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종합적 구성에는 단계적 구성(기-승-전-결 등), 포괄적 구성(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열거식 구성, 점층식 구성이 있다.
 - 그러나 내가 보기에 열개 짜기는 두 가지 중의 하나다. 중요한 얘기를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신문 기사는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다. 반대로 발단-전개-절정-결말 식으로 고조시켜 중요한 얘기를 뒤에 두는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발단과 전개에서 충분히 배경설명과 예열을 한 후, 절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지르는 방식이다.
- 일반적으로 기-승-전-결 혹은 서론(도입)-본론(전개)-결론(정리)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 기 : 일반론을 주로 얘기한다.
 - 승 :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배경도 설명한다.
 - 전 : 이유와 근거, 사례 등을 서술한다.

- 결 : 주장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그에 따른 미래상 등을 제시하고, 당부의 말을 담는다.
- 서론 :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배경 등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 본론 : 예시, 인용, 수치, 기대효과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 결론 : 전체의 요점을 정리하거나 본론의 주장을 다시 강조한다.
- 어느 구조로 글을 쓰건 분량 안배는 중요하다. 서론-본론-결론으로 틀을 짰 경우, 각각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글쓰기에 들어가야 한다. 통상 10%-70%-20%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또한, 내용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따져 분량을 배정해둘 필요가 있다.

● 이밖에도 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구조를 활용한다.

- 주장 → 근거(이유) → 예시 → 다시 주장
- 나타난 현상에 관해 언급 → 그 원인을 얘기 → 해결책 제시
- 다른 사람 주장 소개 → 문제점 논박 → 대안 제시
- 관심 끌기 → 주제 제시 → 구체적인 진술 → 마무리
- 본인의 주장 제기(正) → 이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의견(反) → 종합적인 결론과 반박, 해법(合) 제시
- 지금까지의 성과 → 남은 과제 → 협력 당부 → 각오 피력
- 현황 → 미래 제시 → 과제 → 해법
- 행사 참석 : 축하 → 행사의 의의 언급 → 당부 (핵심메시지) → 기대 표명
- 단체 대상 : 단체의 노고 치하 → 단체가 이룬 성과와 변화 노력에 관해 언급 →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됨 → 당부(핵심메시지) → 이렇게 지원하겠음

3. 자료 조사

● 글쓰기의 시작은 자료 찾기이다.

- 충분한 자료조사가 살아있는 글을 만든다. 의례적인 행사라도 새로운 내용을 담으려고 고민해야 한다.
- 자료 찾기는 또한 글 쓰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킨다. 세상에 흔한 게 자료이다. 요즘은 특히나 그러하다. 그 자료 중에 필요한 것을 찾아 내가 쓰려는 내용에 꿰맞추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어찌 보면 글쓰기는 자료 찾기 기술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먼저 챙겨야 할 자료는 연설자 코멘트다. 어떤 내용을 연설문에 담으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그게 없으면 비슷한 계기에 했던 이야기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 메시지를 뽑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기사, 책,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한다.

● 자료는 많다.

- 제재, 글감은 책, 포털사이트, 메모, 생각, 경험, 기억, 광고, 속담, 신문, 잡지, TV, 이 모든 것에 있다. 자료는 이미 있는 것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답사,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기억, 관찰과 상상도 넓은 뜻에서 자료일 수 있다.
- 이 자료들은 상호작용을 한다. TV를 보면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을 포털사이트에서 찾는다. 이렇게 이중교배를 하면 할수록 자료는 신선해지고 내 것이 된다.
- 충분한 자료 조사가 살아있는 연설문을 만든다. 핵심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황, 실적, 인용 문구, 정책, 통계, 외국사례 등 소재를 잘 발굴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의 경우, 연설문을 쓰는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조사팀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 자료는 글 주제와 열개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 주제가 정해지고 열개가 짜진 후, 거기에 따른 부속물로서 자료 찾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찾는 과정이, 혹은 자료 찾기의 결과가 주제를 바꾸고 열개를 수정하게도 한다.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보면 자신이 정해놓은 주제나 짜놓은 열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주제와 열개 짜기 단계에서 막혀 있을 때도 관련 자료를 읽다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자료 찾기는 글의 주제와 열개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 자료는 음식의 재료에 비유되기도 한다.

- 풍성할수록 좋다. 음식 재료가 풍부할수록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음식에 맞는 재료여야 한다. 카레 요리를 짜장 재료로 만들 수는 없다.
-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출처가 분명하고 가짜가 아니어야 한다. 부작용이 크다.
- 싱싱할수록 좋다. 제조일이 최근 것일수록 좋다.
- 색다른 것이면 더욱 좋다. 재료가 새로우면 더욱 맛이 있다.

4. 기조 잡기

- 가장 중요한 것은 글 쓰는 사람의 목표, 혹은 목적의식이다.
 - 글 쓰는 목적이 주장인지, 설득인지, 설명인지, 호소인지, 당부인지, 반박인지, 질타인지, 제안인지, 사과인지에 따라 기조가 바뀐다.
 - 목적이 '설명'에 있다면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써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주장'이 글을 쓰는 목적이라면 주관적으로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 글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기조를 달리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이유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인지, 감동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행동을 유발하기 위함인지, 단지 재미를 주거나 칭찬, 격려하기 위해서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기조에 따라 전달 형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 담화문을 발표할 것인지,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할 것인지, 연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편지 형식으로 부드럽게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 기조에 따라 문체도 결정된다.
 - 강건체와 우유체, 간결체과 만연체, 건조체와 화려체 중에 적합한 문체를 고르게 되어 있다.
- 기조를 잡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이 밖에도 많다.
 - 대상이 전 국민인가, 지지 세력인가. 거대담론 형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현안 중심으로 작게 가져갈 것인가. 차분하게 설명할 것인지, 각을 세워 도발적으로 반론할 것인지. 대외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대내문제에 국한할 것인가. 미래 얘기에 중점을 둘 것인가, 당면 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낮게 겸손하게 갈 것인가, 당당하게 갈 것인가.

5. 시작 방법

● 개인적인 인연이나 에피소드

- 노 대통령이 간혹 썼던 방식이다. 2003년 10월 서울 YMCA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연설이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YMCA 회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독교인과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항상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 의표를 찌르는 시작

- 뜬금없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강렬한 첫마디는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다.

● 질문으로 시작

- 긴장감을 높이고 말하는 사람의 부담을 청중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청중을 자기의 연설이나 글 안에 끌어들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당신은 구경꾼이 아니야. 정신 빠짝 차려!’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다.

● 최근 사건 및 뉴스 언급

- 최근에 있었던 일에 관해 언급한다. 이것은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시의성 있고 주목도도 높일 수 있다. 2005년 4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노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했다.

“먼저 산불로 인해 낙산사가 크게 훼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통계 자료 제시

-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통계 수치를 나열하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시작

- 다소 서툴더라도 계산되지 않은 솔직함과 멧쩍은 표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치장된 수사와 형식적인 말보다 훨씬 반응은 좋다.

“이런 자리 처음입니다.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많이 떨립니다.”

-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

-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혹은 결론부터 얘기한다고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을 얘기한다. 친절하고 안정감 있는 방법이다. 특별한 연출도 필요 없다.

- 유익 강조

- 내 글을 다 읽었을 때, 내 말을 끝까지 들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를 서두에서 알려준다. 들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호기심이 집중도를 높인다.
“글쓰기에 관한 오늘 내 강연을 다 듣고 나면 적어도 글을 쓰는 것이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재미있는 일화로 시작

-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흔히 쓰는 것이지만 이 또한 나쁘지 않은 방식이다.

- 정의

- 명제 형태로 자신이 글 속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입니다.”

- 속담이나 격언 인용

- 이때 인용하는 내용은 본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암시를 줄 수 있는 것이 좋으며,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침묵

- 특별한 경우에는 침묵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말을 하려고 단상에 오른 사람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중을 응시할 때 집중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2011년 1월 미국 애리조나 주 총기 사건 추모식 연설 도중 오바마는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다 50여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 서술하기

- 서술은 논리적이어야 하고 효율적이면 더욱 좋다.
 - 논리가 명확하고 비약이 없어야 한다.
 -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 전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 한 문장 하나 메시지
 - 한 문장 혹은 한 단락 안에서는 한 가지 개념,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자. ‘나는 한 사람만 팬다’는 영화 대사처럼.
- 군더더기 삭제
 - 모든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말은 없는지 찾아보자. 단락 안에서도 필요 없는 문장은 없는지 살펴보자. 그 말이 없어도 이해가 되면 불필요한 말이다. 수식어도 지나치면 군더더기이다.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지우자. 깔끔한 게 좋다.
- 접속사 절제
 - 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맞춰 지은 집이 좋은 집이다. 글도 마찬가지다. 접속사를 가급적 쓰지 않는 버릇을 들이자.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만, 독자나 청중들은 맥락과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다. 접속사는 글 쓰는 사람 머릿속에만 있으면 된다.
- 선택과 집중
 - 다섯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각기 비중을 달리하여 울퉁불퉁 기복이 있어야 지루하지가 않다. 어느 것은 좀 길게 설명하고, 어떤 것은 아주 짧게 톡 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다. 긴 문장과 짧은 문장, 긴 설명과 짧은 설명이 적절히 조화를 이뤘을 때 글이 맛깔나고 지루하지 않다.
- 이정표
 - 한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무엇에 관해서 말하겠다고 알려주는 게 좋다.

- 그렇지 않으면 독자나 청중들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여기까지가 대전이고, 다음은 부산으로 갑니다, 잘 따라 오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

● 연결성

- 단락과 단락은 서로 연결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연결이 어려운 경우, 글은 중간제목을 달아 건너뛰고, 말은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등으로 끊고 가라.

● 단락의 일관성

- 일관성을 위해서는 논리성, 통일성,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논리성은 문장과 문장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설득력 있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통일성은 한 단락 안에서 다루는 주제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완결성은 하나의 주제를 시작했으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서술하여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야무야, 흐지부지하는 것은 금물이다.

● 호흡의 일관성

- 글을 단박에 쓰는 건 쉽지 않다. 쉬면서 놀면서 쓰는 것도 방법이다. 나눠서 쓰면 그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보태져 내용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하지만 흐름은 줄곧 같아야 한다. 단박에 쓴 것처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나눠서 쓴다고 누더기가 되어선 곤란하다. 천의무봉(天衣無縫), 바느질 한 자리가 없는 옷처럼 매끈해야 한다. 나눠 쓰기 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자. 앞서 쓴 글의 호흡을 다시 익힌 후 글을 써나가자.

● 응집성

- 같은 메시지는 한군데에 몰아줌으로써 글이 산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오거나, 이곳저곳에 분산 되면 힘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워진다.

● 리듬 타기

- 글에는 자기만의 리듬이 있다. 음악의 리듬을 타 듯이 툭 툭 치고 가다 길게 가고, 다시 짧게 가는 것이 글의 리듬이다. 자기 글의 리듬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면서 귀로 들어봐야 알 수 있다. 소리 내서 읽어 보자. 리듬이 안 맞으면 왠지 어색하다. 어색하게 들리는 글은 읽기도 어렵다.

- 논박

- 글로 반박할 때에는 상대방이 쓴 내용을 요약한 후, 그에 대해 조목조목 차분하게 반박한다. 말의 경우,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하나씩 반론을 제기한다.

- 현장감

- 행사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감을 밝힘으로써 현장감을 살린다.

- 근거 제시

- 신뢰도를 높이는 적절한 통계와 수치를 활용한다. 충분한 예시와 사례, 일화도 설득력을 높인다. 근거는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일수록 좋다. 먼 나라 얘기,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근거로써 힘이 없다.

7. 표현하기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한다.

- 문어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구어체로 작성한다.
- 단문으로 힘있게 작성한다.
- 화려한 문구나 수사보다는 진솔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다.

- 내용을 쉽고 인상 깊게 전달한다.

-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삼가고 확실한 의미전달이 되도록 한다.
-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언어를 찾고 정책이나 메시지를 표어화해서 기억에 남도록 한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구나 비유법 활용한다.
“세계질서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공기가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면 곰팡이는 스러지게 마련입니다.”
- 연설의 신뢰도를 높이는 적절한 통계와 수치를 활용한다.

“개성공단 건설이 마무리되면 여의도 면적의 열배나 되는 남북 공동번영의 터전이 마련됩니다.”

- 원론적 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반복은 특별한 수사적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피한다.

● 최대한 쉽게

- 자기가 아는 말을 해야 쉬워진다. 모르는 소리는 글을 어렵게 만든다. 알더라도 알은체를 하려는 순간, 어려워진다. 특히 전문용어는 아예 쓰지 않거나 쉽게 풀어서 써야 한다. 또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한자어 사용은 자제하자.

● 짧은 문장

- ‘싫증 나는 문장보다 배고픈 문장을 써라’ 몽테뉴만 아는 얘기가 아니다. 누구나 하는 얘기가. 최대한 단문으로 써라. 꼬갤 수 있는 데까지 꼬개서 써라. 끊을 수 있는 데까지 끊어라.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하자. 그래야 읽는 사람이 이해가 빠르다. 연설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힘이 있다.

● 단순화

- 복잡한 것 보다는 단순한 게 낫다. 잘 아는 내용일수록 단순해지고, 모를수록 복잡해진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려운 내용을 단순화하여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만드는 귀재였다.

● 명료

- 요점을 명확히 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삼간다. 그래야 확실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읽거나 듣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골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전개 역시 명료해야 한다.

● 평범

- 거창한 것, 특이한 것보다는 담백하고 평범한 게 좋다. 평범이 비범이고, 진리는 소박하다.

● 압축

- 압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압축한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찾고 메시지를 표어화해서 기억에 남도록 한다.

● 자연스러움

- 글은 글이되 말 같은 글, 친한 벗에게 얘기하듯이 자연스러운 글이 좋은 글이다. 요즘 같은 영상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 중복

- 특별한 수사적 효과를 도모하려는 반복은 괜찮지만, 중복은 글을 지루하고 늘어지게 한다. 한 단락 안에서 같은 단어가 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써야 한다면 포털사이트 한글사전에서 같은 뜻의 단어를 찾아서 쓰도록 한다.

● 상징

- 잘만 사용하면 귀에 쏙 들어오고 오래 기억되는 효과가 있다.

● 생략

- 생략해도 좋은 말은 과감히 생략한다. 두 마디로 할 것을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만큼 효율적이다.

● 점층

- 권력기관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창의적 vs 의례적

- 의례적이고 진부한 표현보다는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 특히 일반론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지면과 시간 낭비다.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자. 같은 사안도 낯선 눈으로 보면 새롭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 말대로 참된 발견은 새로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크게 그려라

- 대상이나 주제에 한정하지 말고, 보다 큰 시야에서 보고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로 확장한다. 기왕이면 생각을 크게 하라. 그래서 손해 볼 일은 없다.

- 과거 통해 현재 부각

-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한다.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권의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건군 당시 소형 경비정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우리가 1만 4천 톤급의 군함을 건조해낸 것입니다.”

- 친근감 표시

- 글이나 말이나 칭찬, 추켜세움, 공통점 강조는 많을수록 좋다. 대신 진심을 담아야 한다. 허례허식이나 빈정거림으로 들리면 큰일이다.

- 주의 집중

- 관심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적절히 배치한다. 개인적인 인연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다.

- 눈에 그려지게, 손에 잡히게

-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을 거치고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를 횡단해 파리와 런던까지 가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야 합니다.”

- 수사법

- 화려한 문구나 수사보다는 진솔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구나 비유법 활용한다.

- 인용

- 유명 인사의 말, 역사적인 사실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단, 표절을 해서는 안 되고, 남의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 속담, 명언

- 외교 연설문 등에서는 상대 나라의 속담이나 명언을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글에서 한 차례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8. 글을 끝내는 열두 가지 방법

- 인용

- 속담이나 격언, 역사적 인물의 명언, 명구를 활용하여 끝내는 방식이다. 특별히 할 말이 없을 때 쓰는 가장 무난한 마무리이다.

- 정리

- 앞서 얘기한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짚어줌으로써 강조하거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다.

“오늘 긴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 청유, 당부, 호소

- 당부하거나 권유할 내용을 ‘~합시다’ 하면서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결심이나 행동을 자극한다.

“금년 1년은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눈물과 땀을 바칩시다. 오늘의 고난을 감수하고 같이 손 잡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 기대 표명

- 앞에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끝을 맺는 방법이다. 가급적 밝고 희망찬 메시지,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좋다.

“이번 회의의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번 행사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출발하는 심기일전의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 약속, 다짐

- 자신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지킬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리며...”

● 다시 한 번, 거듭

- 가장 흔하게 쓰는 마무리이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거듭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다시 한 번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 주장

-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안이나 주장을 하면서 끝을 맺는 방식이다.
“끝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니다.”
“나는 ~에 대한 내 생각을 밝히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 전망

- 앞서 얘기한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 언급하며 끝낸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덕담

- 참석자들의 건강과 행운, 건승을 기원하며 끝내는 방식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 향후 과제

-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남은 과제를 제시하면서 끝을 맺는 방식이다.

● 개인적인 얘기

- 본문 내용과 관계없는 가벼운 이야기로 끝낸다.

“여담입니다만, ...”

“오늘 준비한 얘기는 다 했고, 끝으로 한 말씀만...”

- 여운

- 드라마의 극적인 반전처럼, 전혀 예상하지 않은 내용으로 끝냄으로써 청중이나 독자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마무리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실패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 누구나 멋있게 끝내고 싶다. 그래서 욕심을 낸다.

- 하지만 마무리쯤 오면 독자나 청중은 지쳐 있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 생각나지 않던 것이 끝낼 때가 되면 할 말도 많아지고 아쉬움도 커진다. 그래서 끝낼 듯 끝낼 듯하면서 끝내지 않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족이 된다.

9. 고치기

- 처음부터 잘 쓴 글은 없다고 했다. 잘 고친 글이 있을 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번 고쳤느냐에 따라 좋은 글과 나쁜 글이 나뉜다.

- 퇴고는 ‘333’으로 하는 게 좋다. 최소한 세 번은 봐야 한다. 한번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다른 한번은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보고, 마지막 한번은 독자의 호흡으로 봐야 한다.
- 또한 원고는 컴퓨터로 보지 말고 종이에 출력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어보아야 한다. 나아가 적어도 세 사람 이상에게 보여줘야 한다. 옆에 앉은 동료, 상사, 연설할 사람이다.
- 고칠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예정된 연설시간에 맞는 분량인가. △문제가 될 만한 대목은 없는가. △연설 서두에 거명해야 할 주요 인사를 빠뜨리지는 않았는가. △통계 및 사실관계의 오류는 없는가.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리듬을 잘 타는가.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올 수 있는 클라이맥스는 어디인가. △인명, 외래어 표기는 정확한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참고로, 맞춤법 확인은 ‘국립국어원’ 사이트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부산대와 나라인포테크 공동제작)가 매우 유용하다.

- 첫 번째는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 주제가 잘 부각됐나? 즉 청중이나 독자가 어느 게 주제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 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가.
 - 주제를 뒷받침하는 소재는 충분하고 적절한가.
 - 주제의 명료함을 가리는 장황한 수사는 없는가.
 -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많지는 않은가.

- 두 번째는 글의 전개에 무리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 서론, 본론, 결론의 서술이라면 이들 간의 안배는 균형감 있게 되어 있는가.
 - 단락 구분과 단락 분량은 적절한가.
 - 단락과 단락 사이에 연결은 매끄러운가.
 - 전반적인 흐름에서 통일성을 깨트리는 단락은 없는가.
 - 단락 순서를 바꾸면 더 나아지는 것은 없는가.

- 세 번째는 내용상의 보완이다.
 - 빼도 상관없는 군더더기는 없는가.
 - 빠트린 내용은 없는가.
 - 앞과 뒤가 서로 상충하는 내용은 없는가.
 - 분량은 맞는가.

- 네 번째는 표현상의 문제이다.
 - 다르게 바꿨을 때 더 적절한 단어는 없는가.
 - 불필요한 중복은 없는가.
 - 불확실한 표현은 없는가.
 - 진부한 표현(Cliche)은 없는가.
 - 비문은 없는가.
 - 짧게 끊을 데는 없는가.

● 다섯 번째는 오류 찾기이다.

- 아무리 사소한 오류라 할지라도 그것 하나가 글 전체의 격과 신뢰에 손상을 준다. 특히 해외 순방 연설문에서 외국인 이름이나 지명은 현지에서 사용하는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래어 표기 등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
- 숫자, 이름, 연도 등 사실관계 오류
- 쉼표, 물음표, 가운뎃점 등 부호는 정확한가.
- 한자나 영어는 틀린 게 없는가.
- 표절 시비 우려는 없는가.
- 낱씨,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유동적인 내용의 변동은 없는가.

● 여섯 번째는 독자나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것들이다.

- 지겹다고 하지 않을까.
- 수다스럽다고 짜증내지 않을까?
- 왜 글을 썼는지 알 수 있는가.
-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을까.
- 재미, 감동, 지식 등 무슨 유익을 얻을까.
- 처음 시작에서 흥미를 보이겠는가.
- 결론에서 여운이 남겠는가.
- 글이 리듬을 타고 있는가.

10. 고치기 시 유의점

- 오류는 틀림없이 있고, 수정하면 나아지는 게 반드시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반드시 있다.
- 철저히 독자가 되어야 한다.
 - 글을 쓴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쓴 이유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합리화한다. 인정사정없는 독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쓴 글이라 생각하고 가차 없이 고쳐야 한다.

- 잠시 묵혀둬야 한다.
 - 글을 쓴 다음에 곧바로 고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다. 자기 글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인 입장으로 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히 뜸을 들인 후 독자의 눈으로 다시 보자. 쉬운지, 명료한지, 설득력이 있는지, 혹시 오해할 것은 없는지 다양한 시각으로 뜯어보자.
- 소리 내어 읽어 보자.
 - 운율이 맞는 글이 잘 읽힌다. 어색한 부분은 읽으면서 걸린다. 연설문은 말할 것도 없다.
-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자.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어볼 것이고, 느낌은 얘기해줄 것이며, 명백한 오류는 잡아줄 것이다. 나아가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줄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필수다.

11. 제목 달기

-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 그래서 의문형을 자주 쓴다. ‘역사란 무엇인가’처럼 말이다.
- 길어도 상관없지만, 최대한 압축하는 게 좋다.
 - 신문 기사 제목이 그렇다. ‘경제위기 터널 지나’
- 글 내용과 동떨어지면 곤란하다.
 - 나는 A를 전달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은 B로 알아들으면 낭패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엉뚱한 제목을 달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많이 쓰이는 소위 ‘낚시’라는 것이다. 지양하는 게 좋다.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이 바람직하다.
- 호소형, 청유형도 자주 쓰인다.
 - ‘국민통합의 시대를 엮시다’

- 유행을 따라가는 식상함을 피한다.
 - 제목에도 유행이 있다. 책 제목이 그렇고 영화 제목이 그렇다. ‘살인의 추억’이 히트를 치니 ‘00의 추억’이 유행했다. 정 안되면 편승이라도 해야겠지만, 그것으로는 중간밖에 될 수 없다. 제목도 참신함이 생명이다.
-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면 좋다.
 - 너무 분명하면 여지가 없다. 상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약간은 모호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12. 최종점검

- 다 된 밥에 코 빠트린다는 말이 있다. 퇴고까지 완벽하게 마쳤는데, 그 이후 절차에 문제가 생겨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연설문 작성 이후 주제와 관련한 최근 흐름이나 상황이 변화된 것은 없는가. △연설자보다 앞서 연설하는 사람의 연설 내용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연설하는 현장의 연단과 마이크 상태, 낭독본이 제 위치에 있는지 등이다.
-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 현장에 참석하여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연설자가 현장에서 수정하여 읽은 부분, 읽을 때 부자연스러운 부분 등을 확인한다. 주요 연설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와 여론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잘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연설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설문 작성에 반영한다.
 - 연설문을 작성할 때 연설자가 주문한 사항도 버전 별로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고친 이력을 알아야 연설자가 무슨 말을 강조했는지, 무슨 말에 대해 꺼렸는지 알 수 있다. 이후 연설문을 쓸 때 같은 수정 요구가 나오면 안 된다.

※ 참고사항

□ 글을 멋있게, 감동적으로 쓰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

- 길어진다.
 -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이 내용도 넣고 싶고 저 내용도 넣고 싶고. 중언부언하게 된다. 글쓰기야말로 자제력이 필요하다.
- 느끼해진다.
 - 미사여구가 동원되고 수식이 많아진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Voltaire)가 재미있는 말을 했다. ‘형용사는 명사의 적이다.’ 꾸밈수록 알쏭달쏭해진다는 것이다.
- 공허해진다.
 - 현학적인 말로 뜬구름을 잡고 선문답이 등장한다. 꽃이 번성하면 열매가 부실한 법. 결과적으로 자기는 만족하는데, 실속 없는 글이 된다.

□ 글이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명료해야 한다.

- 첫째, 주제다.
 -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나는 이 글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 글을 읽은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말 한 마디를 남기고 싶은가.
- 둘째, 뼈대다.
 - 글의 구조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
- 셋째, 문장이다.
 - 서술된 하나하나의 문장이 군더더기 없이 명료해야 한다.

□ 글을 이해하기 쉽게 쓰는 방법

- 글쓰기는 나와 남을 연결하는 일이다.
 - 그 글을 봐 주는 사람이 이해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하고 제대로 이해시킬 책임은 쓰는 사람에게 있다.
 -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글이나 말은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입에 떠 넣어줘야 한다. 손에 잡히도록 쥐어줘야 하는 것이다.
- 첫째, 당연히 쉬운 말로 써야 한다.
 - 전문용어에 돼먹지 않은 알은체는 자제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기보다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 둘째, 명확하게 짚어줘야 한다.
 -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의 요점은 이것, 이것, 이것이다’라고. 그래서 읽는 사람이 척 보면 알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사례를 들고 비유를 하는 것이다.
 -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그 나라 국토 면적을 몇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 이해가 쉽든가? 한반도의 몇 배다, 이렇게 설명해야 쉽지 않든가.
- 넷째, 반복해줘야 한다.
 - 세 번 정도는 반복해줘야 전달이 분명하게 된다고 한다. 글의 서두에 내가 할 얘기는 이것이다.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은 이것이다. (두 번) 내 얘기의 결론은 이것이다. (세 번) 단, 이런 반복이 ‘강조’로 들리지 않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횡설수설로 들리면 곤란하다.

□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 우직한 단순성이 있다.
 - ‘굶으면 죽는다.’ 웃음은 나오지만 얼마나 명쾌한가. 선거 구호에도 이런 게 많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 꾸미고 에두르지 않는다.
 - 깐죽깐죽 굶는 방식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 돌파하는 식이다.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이다.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 모호함이 없다.
 - 글을 쓰는 목적 중의 하나는 불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애매한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에 역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의 국민작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그랬다. ‘정확한 단어와 비교적 정확한 단어는 번갯불과 반딧불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 구체적이다.
 -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보다는 살면서 겪는 구체적인 말로 얘기해야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더 공감한다.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말보다는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 더 와 닿는다.
- 강력하다.
 - 귀를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인다. 기억에 남고 깊은 인상을 준다.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같은 촌철살인이 이에 해당한다.

□ 글이 명확하고 단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 그래야 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진다.

- 본질을 꿰뚫어봐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를 단순하게 정리할 수 없다.
- 과욕은 금물이다.
 -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으려 하면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면 꼬이고 어려워진다.
- 독자를 믿어야 한다.
 - 믿지 못하면 구구절절해진다. 노파심은 노파심일 뿐이다.

□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 콘텐츠를 통해 무엇을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재미나 감동이나 정보나 교훈이나 공감이나 위로나 생활의 유익이나를 결정해야 한다.
-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 유행이라서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읽힌다. 스토리가 거창하면 에피소드라도 많이 포함해야 한다.
- 사물보다는 사람과 연관 짓는 게 좋다.
 - 사람들은 사람에 관심이 많다. 하고 싶은 말을 사람과 관련지어 풀어내라.
- 내 것이어야 한다.
 - 원래 내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콘텐츠로 내놓을 때는 내 것이어야만 한다. 어디 서나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 다른 것이어야 한다.
-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좋다.
 - 인용되거나 공유되지 못하면 죽은 콘텐츠다. 물론 콘텐츠는 콘텐츠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읽히는 콘텐츠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 협업 과정을 거치고 다수의 검토를 받는 게 좋다.

- 첫째, 완성도가 높아진다.
 -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 섞이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생각이 발전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그것이 연설문에 반영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보니 작은 오류도 잘 잡힌다. 그러다 보니 삼베옷이 독회를 거치고 나면 비단옷이 된다.
- 둘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 글쓰기는 스트레스다. 남보다 더 잘 써야 하는 경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서로 힘을 모으는 연대 관계로 바꾸면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모두의 합작품이니까.
- 셋째, 초안을 쓰는 부담이 적다.
 - 독회에서 걸려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초안을 대충 쓰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신경을 쓴다. 초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독회시간이 길어진다. 그것은 동료들에게 미안한 일이 된다. 그러니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초안을 쓴다.
 -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 초안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노력한다. 독회 전에 미리 초안을 보고 충분히 고민한 후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 넷째, 교육이 된다.
 - 잘 쓴 사람의 글을 보면서, 또 함께 고치면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그런 결과로 모두의 역량이 향상된다.
- 다섯째, 위기관리가 된다.
 - 글을 쓰는 과정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오류 등 실수의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대통령 연설에서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독회에서는 이런 실수가 대부분 잡힌다. 끝.

MEMO

MEMO

MEMO